

일 주 문



안양교도소 신년위원 개회
안양교도소 불교종교위원회 회장 현 성 스님은 2월 9일 안양교도소에서 전 재소자를 대상으로 떡국 공양을 올리고 모범수 조상 제사를 개최한다.



중구청에 1천만원 전달
서울중구불교협회의회장 법타 스님은 1월 18일 최창식 중구청장을 만나 중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강원 사업유치원연합회장 취임
원주 성불유치원장 현각 스님은 1월 1일 101개 강원도 사업유치원을 대표하는 강원 사업유치원 연합회장에 취임했다.



최영수 봉은사 신도회장
최영수 봉은사 신도회장은 1월 19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린 '신도회장 이 취임식 및 2013년 신도회 발대식'에서 취임했다.

東大불교대학원 16대 회장 취임식



동국대불교대학원 총동장회(회장 문황진)는 1월 23일 명동 세종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제16대 회장 이·취임식을 병행했다. 전회장 문황진 회장(제3기) 이임사에 이어 제16대 회장으로 추대된 진우 스님(제10기)은 "2500여 동문들의 의견을 착실히 수렴해 동문회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운문사승가대 졸업식 개최



청도 운문사승가대 제 49회 졸업식이 1월 24일 운문사 대웅보전에서 열렸다.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이날 졸업식에서는 4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36명의 학인 스님이 졸업장을 받았다. 또한 보현율원 11명과 지난 2010년 설립된 한문불전 승가대학원도 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임기 마친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 소통 위한 해법을 말하다

“칭찬과 배려를 하라”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면

“자기를 들여다 보라”

개인간의 갈등 해결 하려면

“일자리를 늘려라”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는

“갈등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항상 따라다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갈등은 분명 극복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좌절과 포기 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가 없으면 깨달 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렇게 시 시각각 우리 사회에서 생기는 갈등을 극복하려면 내가 먼저 부처가 되어 합니다. 중생심을 갖고 양 보하고 이기심을 없앤다면 누구와도 소통과 화합 을 할 수 있습니다. 곧 들어설 새 정부도 날로 심 해지는 양극화와 계층 갈등을 극복하려면 바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1월 18일로 임기를 마친 송석구(74) 대통령직 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갈등 이 없다면 죽은 사회”라며 “갈등을 나쁜 것으로 만 볼 것이 아니라 발전의 요소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12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사회통 합위원회 출범 때부터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1 년 1월 고건 초대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직을 이 어 받은 후 연임해 2년간 위원장을 맡았다. 송 위 원장은 동국대와 동덕여대, 가천의대 총장을 지 내기도 했다.



1월 18일 임기를 마친 송석구 전 사회통합위원장에 사회통합과 소통을 위한 제언을 들었다. 송 전위원장은 2002 년 불교세계화를 목적으로 만든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활성화에 힘썼다고 말했다.

▲위원회 활동을 마친 소회를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는 지역 및 계층, 세대간의 갈등 구조 속 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간의 소 통과 통합은 정부 및 우리 사회가 가장 큰 관심 을 갖고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 아서 정책을 만드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우리 사 회의 갈등과 소외된 이웃이 있는 곳이면 직접 현 장으로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 다. 함께 듣고 대화하는 것 만큼 큰 소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책을 만드는 부처가 아닌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여서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좋은 자문 기구 역 할을 충분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소통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한 가장 큰 성과 를 꼽는다면요.

-16개 시·도에 지역 협의회를 구성해 지방· 중앙 간 소통의 틀을 만든 것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 29개 도시에서 진행 된 334차례의 지역 간담회와 2만여명이 참가한 소통 아카데미, 노인과 젊은이들이 역할을 바귀 함께 참여한 '청춘 다방'과 '생활의 달인 교실' 프로젝트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시간 강사 제도 개선, 근로 빈곤층에 대한 고용보합

료·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등도 추진했습니다. 이외에도 공익법인 재산 출연 시 상속·증여세를 비과세로 하고 개인 기부 비과세 대상을 30%로 올린 것 등도 나눔 확대를 위해 더 발전시켜 나가 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통합위원회 일을 하면서 불교적 가르침 이 큰 도움이 되셨는지요?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점점의 해법은 결국 중도인데 중도라는 것은 두 가치의 중간이 아니고 가치의 최고 정점입니다. 이것이 양쪽을 다 포섭합니다. 원효대사의 화쟁론에는 '如言而取 皆不許故(여언이취 개불허고) 得意而言 無不 許故(득의이언 무불허고)'라는 말이 있죠. '말 그 대로 따르면 어느 것도 받아들이 수 없지만 말에 담긴 뜻을 살려 들으면 무엇이든 용서하게 된다' 는 뜻입니다. 이것을 공직 생활 내내 좌우명으로 삼고 일한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살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개인적 갈등들을 극 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으시다면 소 개해 주세요.

-인간은 생로병사(生老病死), 마음은 생주이멸 (生住異滅), 우주는 성주괴공(成住壞空)이라 했습 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순간순간 자기 마음 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바로 이와 일맥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시각각으 로 일어났다 가라앉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변화하지요. 그런데 이 변화하는 그 마음을 잘 관찰하고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도 저절로 생겨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소통이 제일 문제인 것 같 은데 이를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진 정한 대화는 상호존중과 배려, 칭찬으로만 가능 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칭찬 을 많이 하세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등은 바로 없어집니다.

▲사회통합을 위해 새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양극화, 계층 갈등 극복을 최순위에 놓고 일 자리 확대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빈부 격차가 심 화되면 빈곤층은 꿈과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 어 렵게 살아가지요. 당장 생존권도 위협받는데 무슨 소통과 화합이 관심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므 로 소의 계층에 대한 배려와 이해만이 사회통합 의 핵심입니다. 새 정부도 이를 위해 힘써야 국민 대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들려 주세요.

-제가 2002년에 동국대 총장 시절 만든 학회가 있습니다.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인데요. 그동 안 한국불교학을 영문으로 소개하는 책을 20권 정도 출간했습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동안 재정 문제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사단법인화시켜서 계속 해서 후학들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구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한국불교를 소개할 수 있는 영문잡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인 계획이라면 제가 그동안 5권의 책을 펴냈는데 이를 세 권으로 압축한 개정판을 출간할 예정입 니다. 그리고 소통에 관한 강의로 많이 하러 다닐 것입니다.

글=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진=박재만 기자 wanhohlo@hyunbul.com

빙상 이상화 선수, 불심으로 세계新

불교종립 은석초교 출신, 경기 전 향피우고 마음 가다듬어

'빙속 여제' 이상화(24, 서울시청)가 불심으로 세계 스피드스케이팅 역사를 새롭게 썼다.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있는 이상화 선수는 1 월 21일 캐나다 켈거리에서 열린 2012-2013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 컵 6차 대회 여자 500m 1부 리그 2차 레이스에서 36초 80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을 차지 했다.

2012년 1월 중국의 위장이 작성한 세계기록 (36초94)을 0.14초 앞당긴 것이다. 이로써 이상 화는 2012-2013시즌 500m에서 8연속 우승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정도심(淨土心)이란 법명을 지니고 있는 이상 화 선수는 종립학교인 은석초등학교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불교로 마음을 가다듬었다. 시합 전



에는 향을 피우고 불 공들 드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메달 을 탄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도 현지 에서 향을 피우고 마 음을 가라앉혀 좋은 기록을 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화 선수는 "욕 심을 버리고 마음가 짐을 다르게 하니 몸 상태도 좋아졌다. 이번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해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올림픽 2 연패를 위한 포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부산 삼광사 힐링·수행·문화 도량으로

2월 1일 제11대 주지 무원 스님 진산식 봉행

전태종 삼광사는 제11대 주지 무원 스님(사진 )의 진산식을 2월 1일 오전 10시 삼광사 불교문 화회관(지관전)에서 봉행한다.

무원스님은 "종단의 대표 사찰이자 부산 시민 의 의지체인 삼광사를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 를 여는 힐링 도량, 신심과 원력으로 삼광사의 발전과 종단화합을 위해 정진하는 수행도량, 다 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신적 가치를 지 켜나가는 문화도량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 를 전했다.

향후 4년간 주지를 맡게 된 무원 스님은 1959 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 1979년 구인사에서 출가해 대충 대종사를 은사로 수계 득도했고, 인 천 황룡사, 서울 명락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또 총무원 사회부장, 총무부장, 총무원장 직무



사회복지와 대중문화 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대 통령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통일부장 관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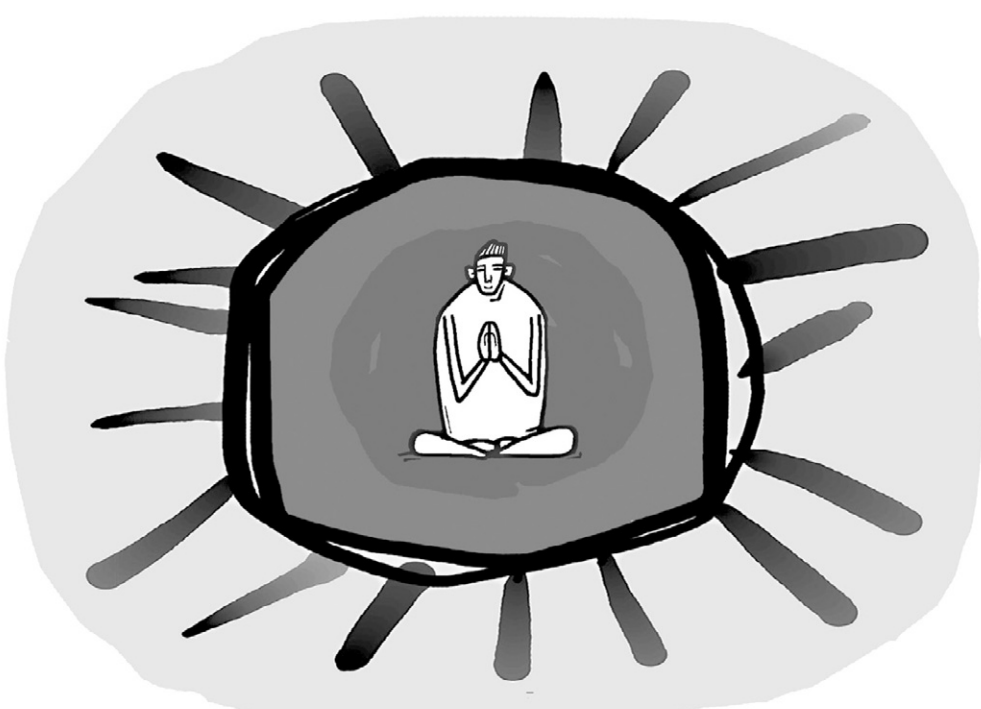
박경수 부산지사장



생활속의 불법수행 ③

생활속의 불법수행은 현대불교신문 광고지면을 통해 부처님 법을 널리 홍보하는 지면입니다. 불자개인, 단체, 사찰 누구라도 소정의 정성금으로 부처님의 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광고부 02(2024)-8213.4

그 물처럼 얽힌 삶의 관계 속에서



누구나 다 나라 잘 되기를 바란다. 누구나 다 내직장, 내 가정 잘 되기를 원한다. 내 나라 내 직장 내 가정 잘못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잘 되는 경우보다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느껴진다. 무슨 까닭인가? 불가에서는 그 원인을 무명(無明)에서 찾는다. 탐·진·치 삼독심(三毒心)을 낳고 삼독심은 온갖 번뇌망상을 빚어내기 때문에 세상이 온통 고(苦)의 바다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을 무명이라 하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본래 상호관계의 산물이라서 그 관계의 그물을 벗어 나서는 한 순간도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것을 무명이라 한다. 다시말해 '나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채 '나' 를 고집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다. 생명체로서의 당연한 욕구인 생존·생리의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 확인, 자존자애의 욕구가 있다. 누구나 다 내 생명의 소중한 이 담원스럽고 내 이익, 내 감정에 애착을 갖게 마련이다. 고로 '나' 를 앞세우고 '나' 를 갖대고 삼아 세상을 상대하고 사물을 평가하는 행위를 나무랄 수는 없다. 따라서 '나' 를 고집 하는 게 무명이요 그 점이 바로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못 되는 원인이 된다 해도 개개인으로서의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려 보면 우리는 금세 '나' 를 고 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글을 쓰고

있는 나를 되돌아 보자. 이 원고지·연필·책상· 의자 이 사무실 건물, 이도시·이 땅·이 지구... 이런 것들이 없다면 글을 쓰는 나도 없을 것이다. 아니 내 부모, 내 부모의 부모, 조상들이 없다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또한 없을 것이다. 내가 쓰고 있는 이 한 장의 원고지도 또 종이 원료인 펄프를 공급하는 삼림의 수목과 연결되어 있고 수목은 토양과 비구름, 바람, 태양열과 이어져 있다.

나의 아침 식단 - 쌀밥, 생선, 채소, 고기 등은 내 생명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원이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나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는 일체의 생명체, 일체의 무정물들과 고리로 고리로 이어진 채로 살고 있다. 그런 연쇄의 고리 속에서만 비로소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더 복잡한 상호호환의 관계 속에 있다. 그 관계는 마치 그물과 같아서 개개인이란 하나의 그물코에 불과하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그 관계성을 잊고 산다. 아니, 본래 관계의 그물 속에서만 비로소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 그물 뿐 아니라 관계가 없다고 부정하기까지 한다. '나' 만을 고집하고 내 존재, 내 이익, 내 감정에만 집착한다. 그물을 끊는 행위이다. 그러니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게 된다.

관계의 그물에 대한 바른 이해- 그것이 곧 불행, 갈등을 푸어내는 열쇠이다.

협찬 약천사 자운스님
02(3391)-8523 서울 노원구 중계동